

담당_김미선

제과업계 고문으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종익 명장 기술발전기금 기탁



(사)대한제과협회 고문 '김종익 명장'은 기술발전기금 1백만 원을 중앙회에 기탁했다. 김종익 명장은 지난 해 12월 23일 중앙회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계의 최고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후

배들의 기술발전과 전체 제과업계 발전을 위해 써 달라"는 기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대리해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이 업계 고문의 정성어린 기금을 전달받고 늘 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김종익 명장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 및 중앙회 수여 표창 대상자 심의

중앙회 인사위원회 개최



지난 1월 9일 (사)대한제과협회 회의실에서 정부표창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 조병천 위

원장을 비롯해 중앙회 유현식 부회장·대구시지회 이상태 지회장·경기도지회 조계중 지회장·대전시지회 정만규 지회장, 광주시지회 이기남 지회장, 서울동부 김중주 지회장, 중앙회 양경보 감사 및 정일석 사무총장 등 8명의 인사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상·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서울특별시시장상 등 정부 수여의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고 협회가 수여하는 실무자 표창장·감사패·공로패 수상자는 물론 모범지회 표창을 논의의 통해 결정했다.

Prism

중앙회 회장단 및 분과·지도위원장 회의 개최

2005년 사업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보고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월 12일 본 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중앙회 회장단 및 분과·지도위원장 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모 회장을 중심으로 조병천 수석 부회장, 김성환·임영진·주재근 부회장 등 회장단을 비롯해 기술분과 안창현, 기획분과 김봉수, 조직분과 홍순찬, 기술지도 홍중훈 위원장 등 중앙회 각 분과·지도위원장과 중앙회 사무처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1월 20일 열릴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2005년도 사업결산 및 2006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앙회 사업계획에 대한 회장단과 분과·지도위원장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특히 기술지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제과기술대회의 예선이 서울에서 치러진 탓에 지방 기술인의 대회 참가의지를 저하시켰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각 지회 중심의 예선을 거쳐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역별로 본선 진출자를 안배하기로 결정했다.

구매분과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영세 제과점이 싼값에 좋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또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지정해 전국 회원 제과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인보사업을 펼쳐 제과인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일궈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2006년도 수지예산(안) 심의에서는 협회의 회원 복지·교육·국제교류·대외 홍보 등 각 사업별 예산 계획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논의에서는 중앙회비가 지난 1997년부터 1천200원으로 고정된 탓에 해가 갈수록 협회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는데 따라 중앙회비의 소폭 인상안을 올해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중앙회 세미나실 구축과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치고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거쳐 올해 (사)대한제과협회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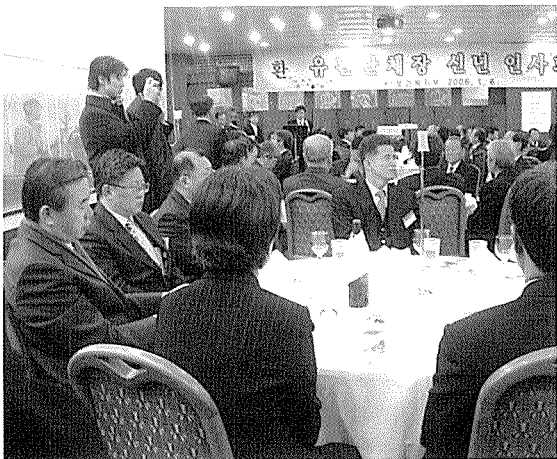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따라 앞으로 제과시장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전하며, "회원 발전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기능과 사업이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식품공업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신년회

김영모 회장, 보건복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지난 1월 6일 과천시민회관 씨티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2006년 유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해 (사)대한제과협회, 식품공업협회, 대한노인회 등 100여 명의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 단체장이 참가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올해를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깊어가는 소득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보건복지 가족이 맨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송재성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 단체장은 오찬을 함께 하며 식품 안전 등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같은 날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년하례식에는 김영모 회장을 대리해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김영모 회장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 1월 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식품공업협회 신년인사회에도 주요 외부자격으로 초대받아 참가했다.



담당_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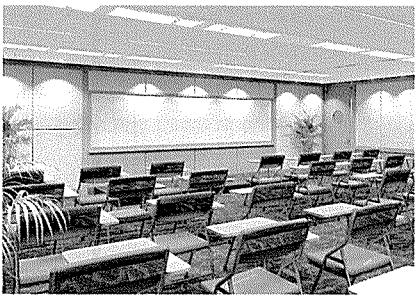
2005년 중앙회 예산결산 감사

Siba 2005 예산 집행 및 사업실적 결산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2005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양경보, 이 기남 감사로부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지난 해 서울국제제빵과경진대회 지출 내역을 비롯한 사업 실적과 예산 결산 서류를 이들에 걸쳐 꼼꼼히 살펴본 감사들은 이날 감사에 대해 중앙회 예산 집행의 경우 Siba 2005처럼 대규모의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회 조직에 관한 정관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정기총회에 상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회원 발전 위한 세미나·교육·회의공간으로 활용

중앙회 회관 최신 설비 세미나실 구축



중앙회관에 세미나실이 들어섰다. 지난 해 기존의 지하층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냉난방, 방수,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본공사를 마무리짓고 최신 시

설의 제과·제빵 설비를 두루 갖춘 중앙회 세미나실의 구축에 나섰다. 새로 단장된 중앙회 세미나실은 제과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와 제과·제빵 기술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신규업무 위생교육 등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외부시설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되던 협회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04년 7월 전국 제과인들의 뜨거운 정성을 모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중앙회관을 건립했다.

올해부터, 회원에만 참가자격 부여

협회 주최 대회 지역별 예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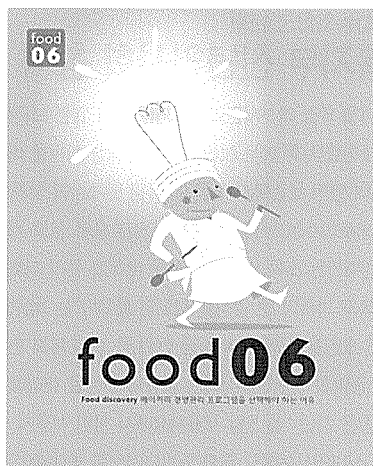


올해부터 (사)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하는 기술경연의 예선이 각 지회 중심의 지역별 예선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중앙회 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안창현)는 앞으로 전국크림치즈경연대회와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같이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치러지는 협회 주최 대회의 경우 서울에서 일괄 개최하는 현행과 달리 예선을 지역별로 나눠 개최해 지방 기술인들의 대회 참가가 보다 수월해지도록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각 대회 예선이 서울에서만 개최됨에 따라 지방에서 예선에 참가하려는 제과 기술인들의 과다한 경비지출 문제 및 시간 소요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지회의 회원 수에 따라 본선 진출자수가 안배됨으로써 지방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지회·지부의 대회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부터는 각종 협회 주최 대회의 참가자격을 회원업소에만 한정하기로 하는 등 (사)대한제과협회는 경진대회를 통해 회원업소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감의 글

지난 해 10월 출간된 본인의 저서 「○○○ ○○○」 가운데 일부내용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관계로 인하여 몇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7일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을 순화한 수정본이 발행돼 판매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 ○○○」 저자 김영모



경영관리시스템 '푸드디스커버리'와 업무 제휴·회원 할인가 보급

중앙회 개인제과점 경영관리 전산화 사업 개시

(사)대한제과협회는 회원 제과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관리 전산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1일 경영관리시스템업체 '푸드디스커버리' 최병철 대표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별 원가계산, 재고관리, 배합표 작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개인제과점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접목하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제과점 실정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푸드디스커버리가 개발한 경영관리프로그램 'Food04'는 이 업체 최병철 대표가 지난 24년 동안 제과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제과점만을 위한 맞춤형관리시스템으로 (사)대한제과협회와의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모든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품별 생산 수량과 재고수량만 입력하면 창고의 재료 잔고량과 일일매출을 알 수 있고 월별매출관리, 거래처 관리, 계산서 발행, 결제·미수관리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Local News News

담당_김마선

부산 동래구지부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케이크 전달식 개최



부산 동래구지부가 '사랑의 케이크 전달식'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동래구지부(지부장 이경재)는 지난 12월 28일 지부회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만든 케이크를 기증받아 '새들원' '황전양로원' '상록정신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했다. 동래구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이경재 지부장을 포함해 고병선·이동재 부지부장, 강창선 이사, 배대석 사무장이 동래구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케이크에 담아 고스란히 전달했다. 동래구지부는 1992년부터 시작해 15년 동안 해마다 빠짐없이 '사랑의 케이크 캠페인'을 벌여 지역 사회의 훌륭한 귀감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래구지부 이경재 지부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케이크만큼 제과업계와 잘 어울리는 이웃사랑 실천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보는 인보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rism

크리스마스제품세미나&불우이웃케이크보내기 수원시지부 연말·신년 맞아 다양한 활동



수원시지부(지부장 양경보)는 지난 해 12월 6일 크리스마스 제품 세미나를 실시했다. 회원업소에서 50명의 기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딸기크림치즈케이크를 포함한 5가지 제품에 대한 (사)대한제과협회 황정태 기술지도위원의 실연으로 이뤄졌으며, 세미나 말미에 지역 제과점 9곳의 크리스마스 제품 품평회가 열려 지부 회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모았다.

연말을 맞아 수원시지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대한제과협회를 기치로 '불우이웃에 케이크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해 12월 29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을 통해 수원시지부 양경보 지부장은 꿈바도르과자점 등 90여 곳의 회원업소가 심시일반으로 모은 케이크 125개를 수원시청 환경위생과 엄정숙 과장, 자원봉사센터 안금녀 소장을 통해 수원시 관내 10곳의 불우이웃시설에 전달했다.

한편 수원시지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리 신고접수를 받았다. 지부를 통한 대리 신고를 원하는 회원들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세금계산서 등을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지부 양경보 지부장은 "앞으로도 수원시지부는 회원의 실익을 위한 사업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리〉의 제과꿈나무 응원 프로젝트 학생이세요? 정기구독료를 파격 할인해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학교·학원에서 제과기술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과꿈나무 응원 프로젝트 '학생이세요?'를 진행합니다. 〈베이커리〉를 소속 학교나 학원을 통해 10권 이상 단체로 받으시면 49%나 싸게 정기구독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마다 학교나 학원으로 도착하는 한 권의 〈베이커리〉가 학생 여러분께 제과기술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일반 판매가 8,000원×12권 = 96,000원

일반 1년 정기구독료 = 70,000원 ↓ 27%

학생 1년 정기구독료 = 49,000원 ↓ 49%

(일반 정기구독료보다 30% 저렴)
학생 6개월 정기구독료 30,000원

〈베이커리〉 정기구독, 편하게 신청하세요

● 정기구독 연락처 (사)대한제과협회 담당 최영아 02)2055-3347

● 구독료 입금 은행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 068-25-0010-571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농협 360-01-036052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